

주의보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겨울철 어린새끼돼지에 발병하여 양돈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돼지 바이러스성 설사병의 발생주의보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9. 11. 10.

농 립 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돼지 바이러스성 설사병

돼지 설사병인 전염성위장염(TGE)과 유행성 설사(PED)는 일교차가 심한 늦가을부터 추운 겨울철에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급성 설사병으로 모든 일령의 돼지에 발병하지만 특히 1주령 미만의 젃먹이 돼지에 발병하면 대부분 죽게 되는 무서운 제2종 법정전염병이다.

□ 돼지전염성위장염(TGE)

○ 돼지전염성위장염은 주로 추운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고 전염성이 매우 높으며 젃먹이 돼지에서 많이 발생한다. 특히 1주령 미만의 젃먹이 자돈은 거의 100% 죽은 무서운 전염병이다.

○ 주요증상은 우유덩어리 같은 구토물을 보이며 회백색 또는 황록색의 심한 악취가 나는 물갈

가축전염병 발생주의보

지난 겨울철에 전국적으로 발생한 돼지유행성 설사병으로 많은 젃먹이 자돈이 죽어 양돈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준 바 있고, 최근에는 경기 안성·과주, 충남 홍성, 경북 영천, 경남 함안, 제주 지역 등에서 돼지유행성 설사병이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올 겨울에는 예년과 달리 일선농가에 초산돈과 후보돈 사육이 많고 예방접종률이 저조하여 바이러스성 설사병의 발생이 매우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양돈농가에서는 농장내 방역관리와 예방접종을 철저히하여 설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

1. 주요증상

은 설사를 3~4일간 하고 피모가 거칠어진다.

○ 젃먹이 자돈은 설사로 인한 심한 탈수증으로 발병된지 1주일 이내에 대부분 죽는다.

○ 어미돼지가 감염되면 식욕부진과 설사를 보인 후 회복되지만 유량 감소 또는 무유증이 나타나면 젃먹이 자돈은 젃을 못 먹게 되므로 더욱 많이 죽거나 위축돈이 생긴다.

□ 돼지유행성설사(PED)

○ 돼지유행성설사병은 연중 발생하지만 특히 추운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므로 돼지전염성위장염 증상과 매우 비슷하며 젃먹이 자돈에서 주로 발생한다.

○분만 1주령이내의 젖먹이 자돈이 감염되면 구토증상과 보온등 아래에서 서로 뒤엉킨 상태에서 포개져 있고, 심한 설사로 온 몸이 설사변으로 더럽혀져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심한 수양성 설사와 복통으로 2~3일간 젖을 빨지 못하면 탈수증으로 기력이 약해져서 대부분 죽게 된다.

○육성돈이나 어미돼지는 구토, 식욕부진, 무기력증,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인 후 회복되나 육성돈의 경우 가끔 죽는 경우도 있다. 특히 어미돼지가 감염되면 무유증 발생률이 상당히 높아 젖먹이 자돈이 많이 죽게 된다.

2. 예방대책

□철저한 차단 방역 및 위생관리의 이행

○농장내로 병원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철저한 차단방역이 가장 중요하다.

○돼지구입은 믿을 수 있는 한·두 농장으로 제한하고, 구입한 돼지는 최소한 2주간 격리 사육하면서 필요한 예방접종과 구충을 실시한 후 합사시켜야 한다.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고 반드시 철저히 소독한 후 출입시켜야 한다.

○농장 내외를 주기적으로 소독하며 돈사마다 반드시 소독조를 설치하고 출입시는 신발을 갈아 신어야 한다.

○분만예정 모돈 및 분만돈방의 철저한 소독과 자돈보온상의 온도 관리(섭씨 30도 정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분만전에 돈사바닥은 물론 유방과 관리인의 손 및 장화도 소독

〈표1〉 돼지유행성설사병과 전염성위장염의 비교

구 분	유행성설사	전염성위장염
발생 계절	연중 발생하나 겨울철에 많이 발생	겨울철에 많이 발생
전염성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발생일령	모든 일령에서 발생	모든 일령에서 발생
폐사율	포유자돈 : 매우 높음 이유자돈 : 낮음	매우 높음 거의 없음
설사형태	물같은 설사	물같은 설사
구토증상	심함	매우심함
무유증	발생이 매우 높음	발생이 높음

한 후에 분만을 유도해야 한다.

○분만자돈은 반드시 소독된 수건으로 입과 몸을 닦아주고 초유를 충분히 먹여야 한다.

○대기사의 임신돈은 이동시 돈체소독을 철저히 하고, 깨끗한 분만사에서 분만을 유도시켜야 한다.

○임신모돈에 대한 예방접종은 계절에 관계없이 매 분만시마다 2회 접종해야 하며, 웅돈과 후보돈도 반드시 종부전 3~4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해야 한다.

□예방접종 실시〈표2 참조〉

□발생시 조치사항

○농장내 설사병이 발생되면 즉시 가까운 시·도 가축방역기관이나 수의과학검역원 및 병성감정지정기관(수의과대학, 민간연구소)에 의뢰하여 정확한 진단과 전문가의 지도를 받도록 한다.

○발병 초기에 감염된 자돈은 즉시 소각, 매몰

〈표2〉 예방접종 실시방법

구 분		1차	2차	3차	4차
전염성위장염	후보돈	후보돈선발시	종부1주전	분만5~7주전	분만2~3주전
	경산돈	분만5~7주전	분만2~3주전	-	-
유행성설사	후보돈	후보돈선발시	종부1주전	분만5~7주전	분만2~3주전
	경산돈	분만5~7주전	분만2~3주전	-	-

*전염성위장염, 로타바이러스감염증은 혼합백신 사용 가능

하고 돈방을 철저히 소독하여 병원체의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분만사는 특별히 소독을 강화하고, 보온에 힘쓰며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모돈은 감염시 특별한 임상증상을 보이지 않으나 무유증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모돈의 유즙분비 상태를 확인하고 무유증상을 보일 때는 주기적으로 유방을 맞사지 해주고 젖을 짜 줌과 동시에 비유촉진제를 주사해주면 좋다.

○이상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병이 확산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수의사와 상의하여 확실한 진단을 받은 후에 인공감염을 실시할 수 있다.

○인공감염을 실시하면 병원체가 폭발적으로

배출되므로 이웃농장에 쉽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질병이 종식될때까지 돼지의 이동 및 판매 금지, 농장내 차량과 사람의 출입통제, 철저한 소독조치 등 병원체가 타 농장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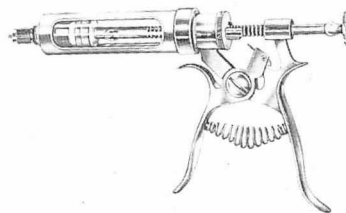
○인공감염 실시후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으면 농장내에서 설사병이 지속적으로 발병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인공감염을 실시한 후에도 예방접종프로그램에 따라 반드시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설사병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양돈**

〈질병문의 : 방역과 (0343)467-1944, 병리진단과 (0343)467-1747, 바이러스과 (0343)467-17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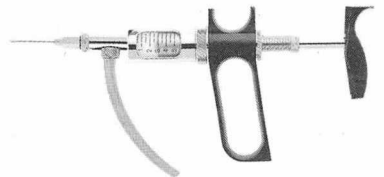
각종 주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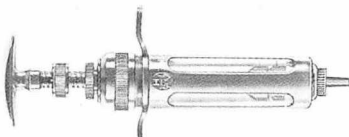
① FERROMATIC 주사기(5ml)



② REVOLVER 주사기(30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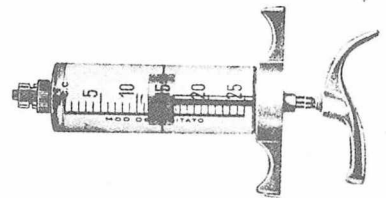
③ SOCOREX 연속주사기(1-5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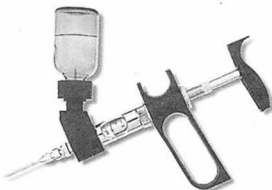
④ 철제주사기(10, 20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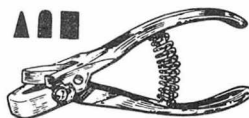
⑤ 휴대용 연막소독기(가스사용)



⑥ P.V.C 주사기(반영구) 10ml, 20ml



⑦ SOCOREX 연속주사기(병장착용)



⑧ 이각기(귀절단)

KW 강 화 축 산

주소: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383-11
 ☎ 305-2548, 374-7013
 H·P : 011-9787-2548
 FAX : (02)308-1030